

디자인·문화예술 기반 '미래 광주' 발전 모델 구상

羨시장 등 대표단, 이탈리아·토리노 도시재생 벤치마킹 유휴산업시설→문화예술공간 탈바꿈...관광명소 '각광'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은 15~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복합 문화공간과 밀라노 도시재생지구인 '조나 토르토나(Zona Tortona)'를 방문, 유휴산업시설(공장) 밀집 도시가 디자인·예술 등 콘텐츠와 민간 중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세계적 디자인 도시로 변모하게 된 과정에 주목했다.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밀라노 서남부에 위치한 '조나 토르토나(Zona Tortona)'를 방문, 유휴산업시설(공장) 밀집 도시가 디자인·예술 등 콘텐츠와 민간 중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세계적 디자인 도시로 변모하게 된 과정에 주목했다.

제강공장, 송전소 등이 있던 산업지구 토르토나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환경 변화로 수만평에 이르는 공장 지대가 폐허 같은 유휴 산업시설로 전락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사진가, 디자이너, 예술가, 건축가들이 자발적으로 공장 건

물을 리모델링해 디자인 스튜디오, 갤러리, 기획사, 소품, 작업실, 카페 등으로 채워가면서 토르토나 지구는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특히 매년 4월 개최되는 '밀라노 디자인위크' 기간 동안 토르토나 지구는 거대한 전시·이벤트장으로 변신해 3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소품들이 속속 들어서는 등 이탈리아의 대표 문화예술 중심지로 재탄생하고 있다.

대표단은 일본 카와사미 셀콘의 '백의흑' 전시와 우리나라 전시작가인 '홍철 원더랜드(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의 공간아트, 삼성관 등을 둘러봤다.

앞서 대표단은 전날 공공디자인 개선



강기정 광주시장 등 대표단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도시재생지구인 '조나 토르토나(Zona Tortona)'를 방문, 공장 건물을 디자인·예술 공간으로 되살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사업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토리노의 '링고토(Lingotto) 빌딩'을 시찰했다.

링고토는 1980년대 후반 자동차산업

이 쇠퇴하면서 고민에 빠진 토리노시가 공공디자인 정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

어넣은 대표적 사례다.

1926년 설립된 링고토 피아트자동차 공장을 1994년부터 개조해 소품물, 호텔, 갤러리, 컨퍼런스센터, 영화관 등으로 변신했다.

오래된 건물의 외관 원형은 보존하면서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재탄생한 링고토는 토리노시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역 산업 쇠퇴에 따른 대안을 공공디자인에서 찾은 토리노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관광객이 60% 증가하는 등 관광도시로 탈바꿈했다.

강기정 시장은 "세계적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한 밀라노와 토리노를 둘러보면서 디자인과 문화예술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복합문화공간 개발, 침체된 구도심 재생, 이와 연계한 관광 도시 조성 등을 위해 디자인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문화재생 모델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도의회 "의대 신설, 하나된 목소리 내야"

"대립·경쟁 장기화면 평도, 매도 놓칠 것" 우려

전남도의회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갈등 없는 화합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차영수 의회 운영위원장(강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표

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도의회의 성명은 전남도의 국립의대 공모 방식 선정 추진 발표 후 지역 간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남의 응집력을 발휘해 의대 신설이 조속 추진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답은 것이다.

도의회는 "은 도민이 간절히 염원했던 전남 의대 신설이 마침내 확정됐지만 목표대와 순천대 간 과열된 유치 경쟁을 넘어 전남 동·서 지역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국립의대 신설은 도

이러 순천대는 "그동안 전남도는 순천대-목포대 의과대학 공동유치를 추진해왔으나 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이후 해당 대학과 별도 협의 없이 '통합의대 추진'으로 정부에 제출한 후 거부되자 '단일의대 공모 방식'으로 다시 변경해 지역사회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순천대는 "전남 제조업 생산의 70%, 인구 100만명의 동부권 중심에 자리해 단일의대 유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단독 신청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대기자

순천대 "전남도, 의대 공모 철회" 촉구

"정부 주관 공모사업 의 응하지 않을 것"

순천대학교가 전남도의 의대 신설 공모 방식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추진단은 17일 "의과대학 설립 공모·선정 권한은 전남도다"고 정부에 있어 법적 근거가 없는 '단일의대 선정 공모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가 주관하는 의대 신설 공모사업 외에는 응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순천대는 "전남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와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상급 의료서비스 불모지"라며 "전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 방식은 행정력 낭비와 동·서부권의 과열 경쟁을 유발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이달 지급

올해 20만9천명 대상 총 1천254억원 규모

전남도는 17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가당 60만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이달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농업인 19만7천명, 어업인 1만2천명 등 21만9천명이다. 지급 규모는 1천254억원이다.

지급 대상 농어업인은 본인 확인 가

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후 읍·면·동사무소나 농협에 방문해 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전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2020년부터 시행해 현재 전국으로 확산 시행되고 있다.

공익수당을 받은 농어업인은 농어업

과 농어촌 발전 주체로서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농어업 공익수당은 농자재, 생활용품, 식료품 등 구입에 사용할 수 있어 본격적인 영농 준비와 함께 침체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4월 중 수령하도록 지급 업무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자활근로 '소방관 방화복 세탁' 일석이조

일자리 창출·소방관 만족도 높아

전남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소방관 방화복 세탁사업'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목포·순천·화순·완도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서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소방 방화복은 일반 세탁이 어려워 특수 세제를 사용, 소방관이 직접 방화복을 세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4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세

탁사업단을 구성, 자연 건조가 가능한 공간의 사업장을 준비하고, 전남도는 각 센터에 방화복 전용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비 등을 도 자활기금에서 2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2월부터 본격 운영 이후 현재 전남 20개 소방서와 세탁물 계약(2억3천160만원)을 했다. 3월 말 현재까지 총 609벌(화순 190벌·목포 201벌·완도 151벌·순천 157벌)의 소방방화복을 세탁했으며 자활근로 참여자 21명의 새 일자리

가 창출됐다.

소방관 방화복 세탁사업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세탁기가 아닌 소방용품 시험인증(KFI)을 받은 세탁기에 방화복 전용 세제를 사용하며, 먼저 외피에 묻은 이물질들을 수작업으로 처리한 뒤 내피와 외피를 별도 세탁해 자연 건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방화복 훼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각 세탁사업단에서는 1주일에 1~2회 각 소방서와 119센터에 직접 수거·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어 소방관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김재정기자

市, 청년 취업전략 설계 '청년 UP+' 특강

20일 김대중센터서 채용 경향 탐색

광주시는 17일 "오는 20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청년 UP+'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UP+' 특강은 15세부터 39세 청년 총 160여명(강의당 40명)을 대상으로 ▲MBTI 분석과 진로 탐색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진단과 이미지 상담(컨설팅) ▲올해 채용 경향과 취업 준비 전략 ▲공감 의사소통 등을 설명한다.

이번 특강은 광주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7억원을 확보한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의 프

로그램 중 하나다.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은 15세부터 39세까지 지역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 플랫폼으로 청년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서와 신체 활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지역 청년의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해 아시아문화전당 근처에 1호점을 오는 30일, 상무지구에는 2호점을 5월 중 각각 개소해 본격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8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선강기자

저희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고운 인연으로 참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하나 되는 첫걸음에
여러분을 꼭 모시어 더욱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김경윤 · 이태복 의장남 태홍균
노수근 · 이명자 의장녀 지원양

2024년 4월 28일 일요일 낮 12시 30분
센트럴 광주 호텔 & 레지던스 파레스가든홀(3층)

[신부측 피로연 안내]
2024년 4월 22일 ~ 23일 무안농협 현경지점
식사대접을 대신하여 답례품을 드립니다.

[오시는 길]

센트럴 광주 호텔 & 레지던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20번길 4 (치평동 1261번지)

☎문의 : 062) 371-8700

제1주차장 : 호텔 주차장 지하1층 ~ 5층
제2주차장 : 도시개발공사 내 지하주차장